



▲ 2026년 4월 25일, 1만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베이징에서 평화청원한 2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런던 시내 중심에서 퍼레이드와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박해를 저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39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093만 9774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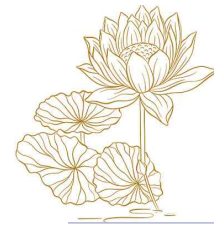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88期(2026.05.01) WWW.MINGHUI.ORG

한글판 1052호 minghui.or.kr



▲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6년 4월 25일, 유명한 랜드마크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 일부 베를린 파룬궁수련자

## 주요 내용

【해외】 ‘4·25’: 세 명의 서양 전문가가 바라본 진리의 힘

【해외】 워싱턴DC 초당파 의원들, ‘4·25’ 평화청원 27주년 맞아 중국공산당 규탄

【중국】 출소 전날 밤, 의문의 죽음

【중국】 위챗 발언으로 위치 추적돼 납치된 지린성 령전후이, 부당하게 중형

【수련】 수련 중의 몇 가지 오류

## 〈목차〉

### ■ 해외종합

‘4·25’: 세 명의 서양 전문가가 바라본 진리의 힘 ..... 3  
 워싱턴DC 초당파 의원들, ‘4·25’ 평화청원 27주년 맞아 중국공산당  
 규탄 ..... 7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10

### ■ 중국소식

출소 전날 밤, 의문의 죽음 ..... 23  
 위챗 발언으로 위치 추적돼 납치된 지린성 링전후이, 부당하게 중형 · 26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29

### ■ 수련교류

수련 중의 몇 가지 오류 ..... 32  
 올바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체험 ..... 36  
 단체 법공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 ..... 40  
 ‘자신이 괜찮다는 마음’은 매우 위험하다 ..... 45  
 경찰의 스쿠터 위치추적기 부착에 대한 주의 ..... 49  
 단체 법공부는 이로움이 많아 ..... 52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어느 날 사돈이 세상을 떠나 딸을 도와주러 갔더니 사위가 깜짝 놀라 머물지 못하게 하면서 즉시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련생은 여전히 단체 법공부에 참가했고 한 달 후 병업 가상이 사라졌습니다.

법공부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A는 몇 년 전 병업 고비로 세상을 떠났고 A의 아들도 수련생인데 어머니처럼 자신의 집에서 법공부하는 것을 아주 지지했습니다. 낡은 집에 겨울 난방 시설도 없었지만 구들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B는 수련생들이 추울까 봐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B는 사람을 대할 때 열정적이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련 전 부체(附體, 사람 몸에 붙는 동물, 귀신 등의 영체)가 있어 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으며, 나중에는 대퇴골두 괴사증에 걸려 자신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파룬따파 수련 후 기적이 나타나 자전거를 타고 장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고 손목이 골절된 후에도 아무런 치료 없이 신기하게 회복됐습니다. B의 일가족 10여 명은 모두 파룬따파를 인정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장기간 단체 법공부를 견지해 온 법공부 팀이 또 있는데, 오랫동안 수련하지 않던 두 수련생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전체가 승화한 사례가 아주 많지만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법공부 장소에 나오지 않은 수련생들이 사부님의 말씀에 따라 단체 법공부에 참가하길 바랍니다.

체 법공부에 오지 않아 알아보니 아주 심각한 병업 고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 부부 수련생이 병업 고비를 겪는 수련생을 도우며 많은 헌신을 했는데, 수련생의 병업이 심각할 때는 그 집에 머물며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들은 농사일을 내려놓고 노인 수련생과 함께 법공부를 하고 발정념을 올렸으며, 주변 수련생들도 더욱 정성을 다해 병업 고비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노인 수련생은 기침이 나고 숨이 차서 숨이 막혀 끊어질 것 같고 목구멍 주위에 3~4치 크기의 어린아이 형상을 한 것들이 가득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 수련생은 점술 같은 책을 즐겨 읽었고 대법서적과 점술 책을 함께 두고 있었습니다. 법리 교류를 거쳐 노인 수련생은 수련은 오로지 한 가지에 전념해야 한다는 법리를 깨달았고 병업 고비는 곧 사라졌습니다.

또 81세의 여성 수련생이 있었는데 파룬따파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습니다. '7·20'에 파룬따파가 불법 탄압을 받은 후 딸과 함께 베이징으로 법을 수호하러 갔다가 박해를 받아 2년간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돌아온 후에도 파출소에서 끊임없이 소란을 피웠지만 그녀는 파룬따파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체 법공부에 참가했습니다. 양쪽 손목이 각각 두 번씩 골절됐어도 그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그녀에게 병업 가상이 나타나 얼굴이 온통 붉어지고 눈물이 그렇그렁했으며 기침이 끊이지 않았지만, 매일 단체 법공부에 참가하는 것을 견지했습니다. 그녀가 법공부 장소에 왔을 때 어떤 수련생이 시간이 너무 길어진 데다 상태도 아주 심각하다고 느껴 “약은 좀 드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으면 이 법을 헛배운 게 아니냐고 했고, 낮에는 곳곳이 해야 할

## ■ 해외 종합 ■

### ‘4·25’: 세 명의 서양 전문가가 바라본 진리의 힘

[명혜망](토론토 통신원) 1999년 4월 25일, 1만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자가 베이징에서 전례 없는 이성적인 자율성으로 평화로운 청원의 도덕적 기념비를 세웠다. 오늘날까지 이른바 ‘4·25’ 정신이라 불리는 이것은 문화와 국경을 넘어 해외 서양인 커뮤니티에서 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토론토 기자단은 예술, 교육 및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세 명의 서양인 수련자를 인터뷰해, 이 역사가 어떻게 그들이 ‘참된 자아’를 찾도록 이끌었으며, 꾸준히 진상을 알리는 원동력이 됐는지 들어보았다.

#### 예술가 리오 “역사의 반향 속에서 인생의 ‘참된 자아’를 찾다”

현재 39세인 예술가 리오는 27년 전 ‘4·25’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겨우 12세였다. 명혜망(明慧網)을 통해 이 역사를 알게 된 후 그는 감탄하며 “이 일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진상 자체의 힘을 보게 해주었다는 점입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기 전, 리오는 오랫동안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 그는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끝내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2021년 34세가 되어서야 명혜망에서 자신의 일생을 바꾼 글을 읽게 됐다. 명혜망 기사를 통해 그는 1999년 ‘4·25’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파룬궁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轉法輪)’을 읽었다. “처음 ‘전법륜’을 읽었을 때 저는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말

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를 성공적으로 끊었습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큰 공헌을 하셨으며, 이 점은 심지어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습니다.”

수련 후 리오는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활력을 되찾았다. 오늘날 그는 각종 진상 알리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얻은 혜택과 깨달음을 수만 명의 시민과 나누고 있다. 그는 깊은 감회를 느끼며 말했다. “당시 수련자들의 선행은 명백했으며, 심지어 당시 이 일을 처리했던 최고위 관리조차 진상의 힘을 보고 구금된 수련자들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유치원 교사 마시 “국경을 초월한 ‘도덕적 기념비’”

마시는 유치원 교사다. ‘4·25’ 사건에 대해 그녀의 마음속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다. “수련자들은 갈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존엄하고 평화롭게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25’ 사건이 도덕적 기념비로 널리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저는 거의 매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데, 이는 저에게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시의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의 20여 년에 걸친 수련 실천에서 비롯됐다. 2001년,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울증과 병고에 시달리던 마시는 약물로 증상을 완화하려 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다. 그 시기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

상황이 돌변해 1999년 파룬따파가 박해를 받게 됐고 C는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A는 정신적 지주를 잃었지만, 파룬따파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이웃 마을 딸의 집으로 가서 법공부를 했는데, 가는 도중에 무덤가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A는 딸의 집에서 절대 자지 않았고, 법공부 시에는 손에 ‘전법륜(轉法輪)’을 들고 딸이 읽으면 한 줄 한 줄 뚫어지게 바라보며 배웠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A는 서서히 한 글자 한 글자 법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다시 법공부 팀을 꾸렸습니다.

A의 집과 마을 회관은 이웃해 있었고 중간에 길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2000년 겨울, 딸과 아들이 함께 베이징으로 법을 실증하러 갔다가 딸은 불법 강제노동을 당하고 아들은 구류를 당했습니다. A는 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와 향의 정법위 사람들이 계속 소란을 피워도 저녁 법공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대법제자들은 누군가에게 일이 생기면 먼저 이 법공부 팀에 알리고 각자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마을에서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 먼 곳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A는 대법제자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대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희는 A의 집에 온 향(鄉)의 대법제자들이 모이는 법공부 팀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매달 한 번씩 전법륜 한 강을 공부한 뒤 교류를 나눴습니다. 모든 수련생이 단체 법공부 참가의 이로움을 직접 체험하게 되자 보름에 한 번 단체 법공부를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매번 단체 법공부 시 오지 않은 수련생이 있으면 주변 수련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번은 83세의 남성 수련생이 단

## 단체 법공부는 이로움이 많아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빛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쏟아졌을 때, 질푸른 하늘과 뭉게뭉게 피어오른 흰 구름도 기뻐 날뛰는 듯했고, 법광 속에 흠뻑 젖은 사람들의 기쁜 마음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활짝 피어났고, 마을마다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렀으며,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속속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 법공부 팀이 있는데, 더 없이 평범한 수련생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범한 의지로 18년 동안 단체 법공부를 견지해 왔습니다. 아래에 단체 법공부와 심성 교류를 통해 제고한 이야기를 써서 수련생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희 지역 대법제자들은 거주지가 분산돼 있고 모두 저희 향(鄉)의 변두리 외진 골짜기에 살고 있어 서로 연락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저희 향 중심 지역의 한 마을에 A수련생과 B수련생이라는 두 여성 수련생이 있는데, 100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A는 글을 몰라 1998년에 법을 얻은 후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는 것에만 의존해야 했고, 글을 모르는 자신이 몹시 원망스러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 대법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법공부를 했습니다. C수련생은 배움이 비교적 높아 당시 자료점이 없을 때 늘 경문을 손으로 베껴 수련생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C의 오성이 뛰어나 자주 법리 상에서 수련생들과 교류를 나눠 모두가 아주 빨리 제고했습니다.

는가?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명예와 금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그녀는 많은 영성 수련법도 접해보았지만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했다.

한 대법 학습반에 참가한 후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 공법이 평범하지 않고 매우 순수하고 바르며, 돈과 명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법을 수련한 20여 년 동안 저의 체력은 향상됐고, 생각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61세인 마시는 여전히 생기가 넘치고 모습이 40대 같으며, 매일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마시의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은 모두 마시가 인내심이 강해지고 더 친절해졌다고 말한다.

마시는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제가 대법의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르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안으로 찾으며 저 자신을 향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공산당(중공)의 모함에 대해 마시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당시 장쩌민(江澤氏)은 탄압의 구실을 찾고 있었으며, 전 세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이며, 큰 선량함과 인내를 품고 몸으로 진리를 수호한 선구자들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 종사자 댄 “물리학의 신비에서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워털루 대학에서 수리물리학을 전공했던 댄은 현재 한 국제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1999년에 발생한 ‘4·25’를 이

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모두가 끈 이론을 토론하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전법륜’을 보며 ‘진선인’이야말로 우주가 운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댄은 소련 시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공산당 통치하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깊이 알고 있다. 그는 ‘4.25’ 평화청원이 수련자들 내면의 ‘참된 자아’의 각성이라 여기며, 중국인들의 고상한 풍모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2007년 대학교 1학년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서 동아리 신입 회원 모집 행사가 열려 분위기가 매우 왁자지껄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많은 부스 속에서 댄은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은 채 가부좌를 하고 있는 한 남학생을 주목했는데,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댄은 속으로 찬탄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알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댄은 파룬따파를 접하게 됐다.

댄은 연공을 시작하자마자 체내에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공법을 배운 그날 밤부터 저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전법륜’을 읽은 후 저는 수련과 대법의 내포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댄의 오랜 불면증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과거 강압적이고 승부욕이 강하며 권위에 도전하기 좋아했던 그는 심성을 향상하는 법을 배웠고, 심

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주 먼 곳에 갖다 버리고 스쿠터도 다시 구석구석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 일을 쓰는 것은 현재 중국 환경에서 안전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중국 수련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스쿠터를 찾을 때(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집으로 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저쪽에서 아직 여러분의 집을 모른다면). 먼저 사람 없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차량에 손댄 흔적이 없는지, 위치추적기가 설치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스쿠터를 타지 말고 바로 걸어서 귀가하거나 중간에 스쿠터를 어딘가에 세워두고 걸어서 집에 간 다음 시간이 날 때 가서 찾아도 됩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타고 돌아가십시오. 요컨대 저쪽에서 아직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다면 그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손을 거친 물건은 돌려줄 때도 십중팔구 손을 댔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할 때 신중해서 자신과 수련생들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해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이 방면의 지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위치추적기를 찾으려면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자석이 달린 위치추적기는 차 밑바닥, 범퍼 안쪽, 휠 하우스 윗부분에 자석으로 붙어 있거나 차 안의 좌석 아래, 계기판 아래, 글러브 박스 또는 좌석 안쪽 틈새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후사경 부근, OBD 단자, 엔진 배터리 바로 아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트 단지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경찰이 차로 우리를 그 단지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경찰에게 진상을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으로는 알면서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꽤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스쿠터를 찾을 때 이미 제 스쿠터에는 위치추적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새벽에 막 풀려난 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별생각 없이 그냥 바로 스쿠터를 타고 나왔습니다. ‘경찰도 진상을 들었고 우리를 풀어줬으니 이 일은 끝난 거 아닌가?’ 싶어 그만 경계심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스쿠터 충전선이 너무 짧아 정상적으로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리해 집 안에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터리를 꺼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 칸 뒤쪽 비스듬한 곳 아주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검은색 직사각형 물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표면은 플라스틱 외피였는데 한 면에 자성이 있었고 배터리 칸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채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내 스쿠터 부품인가?’ 하는 의문을 안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바로 위치추적기였습니다. 위치 추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이 고의로 설치한 것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3년을 쓸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고 여기저기 다녔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수련생이 연루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는 정말 뉘싯줄을 길게 늘어뜨려 ‘뉘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확인한 후 저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파괴하면 저쪽에서 즉시 알아차려 ‘뱀을 놀라게

지어 먼저 아버지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이 이타적인 마음을 박해를 반대하고 진상을 알리는 일에 쏟으며 꾸준히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을 폭로하고 있다.

덴은 기자에게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대법의 진상을 알고 거짓이 폭로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 맺음말

세 명의 서양인 수련자는 비록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4·25’ 정신의 감화를 받아 생명의 귀속처를 찾았다. 그들에게 있어 27년 전 베이징 거리에서 있었던 그 평화로운 청원은 단지 한 토막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일종의 정의로운 힘으로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온 이 서양인 수련자들이 진상을 알리는 길에서 굳건히 나아가도록 지속해서 이끌어주고 있다.

## 워싱턴DC 초당파 의원들, ‘4·25’ 평화청원 27주년 맞아 중국공산당 규탄

[명혜망](리징페이 기자) 2026년 4월 25일은 1만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베이징에서 평화적으로 청원한 지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DC 지역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4월 11일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해 중단을 촉구했다. 여러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을 통해 중국공산당(중공)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고, 최근 격화되는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규탄했다.

## 워싱턴DC 집회, 초국가적 탄압 추세 조명

4월 11일 오후, 대(大)워싱턴DC 지역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체 연공을 했다. 수련자 대표 듀언 하퍼는 집회에서 중공이 이 단체에 가하는 탄압이 해외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원예술단이 최근 미국 공연 기간 폭탄 및 총격 위협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며, 이는 베이징 당국의 초국가적 탄압이 끊임없이 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하퍼는 국제사회가 침묵을 깨고 박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미 의회 증진 의원 “책임 묻는 입법 추진”

인권 문제에 장기간 관심을 가져온 다수의 연방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수련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중공이 최근 30년 가까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는 21세기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2025년 ‘강제 장기적출 방지법’(HR 1503)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명예위원장인 마이클 매콜은 중공이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들과 굳건히 함께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발표했다.

## 위원회를 초월한 성원, 인권 침해 규탄

외교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직능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원 대열에 합류했다.

를 바라신다. 이 글을 써서 이 마음을 폭로하려고 할 때, 구세력은 병엽 가상을 억지로 강요해 이틀 밤을 잠 못 자게 했다. 나는 이를 전면 부정하고 정념을 발하는 것 외에 연공을 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먼저 주변 수련생들에게 이 마음을 폭로했다. 수련생들이 나처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정법의 마지막 이 순간, 수련생 여러분, 우리 함께 정진하며 누락을 찾아 보완하고 손에 손을 잡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시다!

서둘러 쓴 글이라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 경찰의 스쿠터 위치추적기 부착에 대한 주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 수련생들에게 작은 일이지만 꼭 알려야 할 것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어떤 이유로든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났을 때는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타고 갔던 차나 스쿠터에 위치추적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특히 스쿠터는 더욱 그러합니다. 차량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수련생 집을 방문하는 등 이곳저곳 다닌다면 행동 하나하나,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전부 저쪽에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수련생 집에서 법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와 정념정행 덕분에 그날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스쿠터는 그 아

고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전화했고, 남편이 두 달 넘게 병원에서 간병해 줬으며 나도 매주 시간을 내어 음식을 사서 문병을 갔다(그 청년에게는 가족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 청년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자발적으로 그 어머니를 두 달 남짓 간호하며 밥을 가져다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냈다. 이웃들은 내가 대법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거의 모두 삼퇴를 한 상태다). 청년을 문병 갈 때마다 의사와 병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그때가 바로 진상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기회였다. 나는 이것이 대법 사부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흐뭇했다.

진상을 알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연신 감사해할 때, 나는 “대법 사부님께 감사하세요! 대법 사부님이 저에게 당신을 구하게 하셨어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나의 교류 글이 명혜망에 게재됐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 어쩔 줄 몰랐고 더욱 좋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자만하고 남을 무시하며 공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는 교만의 표현이 아닌가? 너무나 무섭다! 꿈에서 사람들이 좌변기 시트를 들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내가 사람들에게 준 것은 다 누락이 있는 것이었다! 사부님이 일깨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자심생마’가 된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후회와 자책이 극에 달했다. ‘사부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자가 정말 틀렸습니다! 이 마음은 결코 원하지 않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진 수련생들은 부디부디 절벽에서 멈춰 서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사부님의 시종일관한 보호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사부님만이 우리가 원만히 수련하기

• 릭 스콧 연방 상원의원 “중공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자이며, 강제 장기적출 등 비열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잭 년 연방 하원의원(중공 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베이징 당국에 책임을 묻고 이 박해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닐 던 연방 하원의원 “27년 전 수련자들이 탄압에 직면해서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낸 것을 찬양하며, 중공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종교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 톰 티퍼니 연방 하원의원 “중공이 종교적 소수 집단, 반체제 인사, 기자들을 장기간 박해해 온 얼룩진 악행에 깊이 우려하며, 양심의 자유 행사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재천명한다.”

## 배경 회고

1999년 4월 25일, 1만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자들은 합법적인 수련 환경과 출판의 자유를 쟁취하고, 텐진(天津)에서 억류된 수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베이징 국무원 청원 사무실로 가서 평화적인 청원을 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로부터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성적인 항거로 여겨졌으나, 이후 당시 중공 당 수괴였던 장쩌민(江澤氏)에 의해 ‘중난하이(中南海) 포위 공격’으로 왜곡됐고, 같은 해 7월 전면적인 탄압이 발동됐다. 이 박해는 현재까지 거의 27년간 지속되고 있다.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4월 19일 햇살이 따뜻한 가운데 대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들이 타이베이 시청 광장에 모여 1999년 '4·25' 1만 명 평화청원을 기념했다. 현장에서는 기자회견과 단체 연공이 열렸고 분위기는 장엄하고 상서로웠다. 많은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이 현장에 참석해 지지를 표명하며 수련자들이 27년 동안 평화적이고 이성적으로 박해를 반대해 온 정신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타이베이 시의원 홍젠이(洪健益)는 다년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현장에 참석해 성원했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은 오랫동안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정신을 지키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요구를 표명하며 인간 본성의 선한 면을 보여주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4·25’의 본질은 평화청원이라며 전 세계 민주 국가들은 모두 이것을 폭력과 유혈이 없는 평화적인 청원 집회로 여기고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중국공산당)은 평화청원에 두려움을 느끼고 진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우려해 고압적인 수단으로 관련 단체를 탄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 자유를 위해 박해를 받고 심지어 장기적출까지 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4월 25일, 일부 일본 나고야 파룬궁수련자들이 나고야 중국영사관 앞에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 ‘파룬따파는 전 세계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파룬궁은 심신 건강에 이롭습니다’라는 4개의 현수막을 펼쳤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원고를 큰 소리로 낭독하며 중공 정부를 향해 27년간 이어진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났다! 이걸 『전법륜』의 ‘자심생마(自心生魔)’ 안에 있는 두 마디 법이 아닌가! 나는 『전법륜』을 펼쳐 ‘자심생마’ 절을 진지하게 한 번 통독했다. 꼼꼼히 자신과 대조해 보니 정말 깜짝 놀랐다. 이 마음이 바로 자심생마의 전조가 아닌가? 나는 서둘러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했다. ‘사부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 마음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는 오직 사부님이 안내해 주신 길만 걸겠습니다.’

그때 잠이 전혀 오지 않아 수련 이래 걸어온 수련 여정을 되돌아봤다.

수련한 이래 나는 두 번 납치됐다. 첫 번째에는 15일간 불법 구금됐는데,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에 삼퇴 명단 28명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중 6명은 경찰이었다. 작년에 또 납치됐을 때는 사부님께 집에 돌아가 사람을 구하게 해달라고, 경찰이 대법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사부님께서는 내게 병업 가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날 집에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나를 도와 해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수련생들이 정법이 충분하다고 칭찬해 줄 때, 나는 입으로는 모든 것이 사부님께서 도와 해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심 우쭐해했다.

수련생들 사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반드시 나섰다. 예를 들면 수련생의 법공부를 도와주거나(글을 모르는 수련생), 수련생이 병업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주거나(대소변을 치워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법에서 떨어진 수련생이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등의 일이었다. 도움을 줄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고 나는 항상 ‘사부님께 감사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뿌듯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왔다. 작년 여름 이웃 청년이 교통사

주신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이렇게 나는 A와 사흘 동안 법공부를 했고 병업 가상은 더 이상 내가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교란하지 못했다. ‘이제는 먼 곳에 가서 진상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갈까? 작년에 내가 납치됐던 그 시장으로 가자! 그곳은 꽤 사악한 곳이어서 수련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렇게 그 시장에 갔고 사부님의 보호하에 한 시간 남짓 만에 14명에게 삼퇴를 권유했다. 매우 기뻐서 앞으로는 먼 곳으로 다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심장병이 재발해 순간 매우 위험했다. 당황한 나머지 사부님께 남편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청했고 사부님의 보호하에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을 놓쳤는가? 동시에 나는 수련 중에 뭔가 누락된 것이 있음을 느꼈다. 어디서 누락된 것일까? 사부님이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일은 다 하고 있었고 스스로 꽤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심(修心) 측면에서는 안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전법륜(轉法輪)’의 ‘업력(業力)의 전화(轉化)’라는 부분을 매일 한 번씩 외웠다. 집착심을 꺼내어 대조해 봐도 딱히 찾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꿈을 꿴다. 많은 사람이 나무 막대기로 좌변기 시트를 받쳐 들고 있었는데, 앞사람이 “이건 당신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까워서 앉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다. 나는 이 우둔한 제자를 일깨워 달라고 사부님께 청했다. 사부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자정에 정념을 발하고 막 누운 직후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다. “자, 나는 나 자신을 보자.”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며”(전법륜). 이 두 마디가 몇 번이고 반복됐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낮이 익을까? 아, 생각

잔혹한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4월 21일 일부 간사이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이 오사카 중국영사관 앞에 와서 평소처럼 현수막을 펼치고 평화청원을 하며 중공에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4월 24일, 사단법인 **한국 파룬따파 불학회**는 한국 내 여러 중국 재외공관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과 부산, 광주, 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각각 열린 이번 행사는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하고, 중국 외교관의 내정 간섭 및 ‘선원(神韻)’ 공연 교란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 행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노란색 상의를 입고 오전 10시에 질서 정연하게 집결해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연공을 했다. 평온한 연공 음악과 함께 수련자들의 일사불란한 동작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평화롭고 고요한 현장 분위기는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4월 18일 **호주** 퀸즐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브리즈번 광장에서 단체 연공과 현수막 전시 및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어 파룬궁수련자들의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했다. 평화로운 단체 연공 장면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이 파룬궁 박해 반대에 지지 서명했다. 유세프 하지 아흐마드는 은퇴 전에는 국제 교류와 협력을 담당하는 한 준정부 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했다. 유세프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아름다운 공법 시연에 끌려 행사 현장의 진상 전시관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파룬궁수련자가 다가갈 진상 자료를 주자 그는 기꺼이 받았고 수련자가 진상 알리는 것을 진지하게 들었다. 유세프는 수련자들이 ‘4·25’ 평화청원에서

보여준 용기에 감동해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은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파룬궁의 ‘4·25’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청원은 인류 비폭력 항쟁의 모범입니다! 보아하니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선인’을 수련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생활 방식이며 저는 ‘진선인’의 이념에 매우 동의합니다. 이런 이념을 따르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세프는 파룬궁수련자들이 박해 반대를 견지하는 노력에 감탄하며 파룬궁의 박해 반대를 기꺼이 지지 서명했고 박해가 하루빨리 멈추기를 희망했다.

4월 24일 초저녁, 호주 수도 캔버라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1만 명 파룬궁수련자의 베이징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하고 중국공산당(중공)이 27년간 ‘진선인’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자를 잔혹하게 박해한 것을 규탄하며 최근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을 폭로했다. 또한 각계가 도덕적 용기를 발휘해 선량함을 지지하고 폭정을 규탄하며 박해를 제할 것을 호소했다.

남호주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각각 2026년 4월 5일과 19일에 주도 애들레이드 도심의 노스 테라스(North Tce)에서 단체 연공과 진상 알리기 행사를 개최해 파룬궁수련자들의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하며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과 인권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주말에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애들레이드 시의원이자 국제앰네스티 회원인 제인 밴지(Jane Bange)가 파룬궁수련자들의 ‘4·25’ 기념행사를 우연히 만나 먼저 다가와 마음을 전했다. “저는 한눈에 여러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대만에 5번 가봤고, 국립고궁박물관 등에서 파룬궁의 대형 행

## ‘자신이 괜찮다는 마음’은 매우 위험하다

글/ 중국 동북 지역 대법제자

[명혜망] 설 전 선달 스무엿새날, 나에게 병업 가상이 나타났다. 머리 왼쪽 절반과 이, 목이 모두 아프고 기침이 나며 콧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사부님이 나를 도와 업을 소멸(소업)해 주시는 것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심해졌다.

정월 초사흘날,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수련생 A의 집을 찾아갔다. A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소업 중임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 나와 교류하며 절대 그것을 병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했다. 모든 것은 가상이라는 것이었다. 이때 또 다른 수련생 한 명이 찾아왔는데, 내가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소업 중인가요? 왜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닌가요? 아픈 것은 당신이 아니에요. 그것과 자신을 분리해 보세요.” 나는 ‘맞아! 내가 그것을 너무 실제적인 것으로 여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손을 내려놓았다. 나는 수련생들과 함께 정념을 발하고 법 두 강을 함께 공부했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초나흘날 아침, 나는 먼저 진상을 알리러 갔다가 A의 집에서 범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목이 아직 좀 쉬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사부님이 엄청난 것을 감당하시며 내게 돌려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나는 공원에 가서 다섯 명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했다. 그뿐 아니라 혼자 수련해 오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싶다는 수련생 한 명도 만났다. 모든 것이 사부님의 안배이며 나는 다만 사부님이 안배해

과 구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수련생은 박해가 시작된 이후 줄곧 정법 수련의 길을 걸어왔지만 저는 여러 차례 굽은 길을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사람 마음으로 인해 깊이 있는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련생에게 사람 마음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가장 뚜렷하게 본 것은 그녀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사람 마음이 너무 많다고 보았기에 서로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련생을 선하게 대하고 상대의 장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생이 자신의 관념에 맞지 않거나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일면 때문에 편견을 갖고 간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간격이야말로 구세력이 원하는 것이며 수련생에게도 자신에게도 전체에도 모두 손실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수련생의 부족을 보는 것은 사실 자신의 거울이며 자신을 수련하라는 것입니다. 수련생이 잘 수련된 그 일면은 얼마나 장엄하고 신성한지 모릅니다! 갈등 또한 바로 사부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으로 찾고 수련하여 제고하도록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만나면 안으로 찾고 솔직하게 대하며 서로 포용하고 함께 제고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의 정체(整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함께 바른 정법 수련의 길을 걷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부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삼가 이 글로 스스로를 일깨우며 수련생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매우 눈에 띄었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가부좌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대만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자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 정부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밴지는 또 자신은 일찍이 국제엠네스티 회원이었다며 말했다. “저는 파룬궁이 중공으로부터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파룬궁수련자들)은 계속해서 박해 반대 활동을 하며, 중국의 가족을 구출하고 박해를 중단할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진선인’을 믿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공이 이런 단체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곳에 나오신 것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소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파룬궁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니 참 좋습니다.” 밴지는 한 수련자가 그녀에게 준 작은 연꽃을 기쁘게 받고 그녀의 축복에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진선인’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4월 25일, 미국 뉴욕권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뉴욕 플러싱(Flushing)에서 대규모 퍼레이드와 집회를 열고 1999년 베이징 ‘4·25’ 만 명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했다. 이 행사는 각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박해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진선인’의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랜 기간 파룬궁수련자들

을 성원해 온 플래싱 커뮤니티 리더 마사와 지인들도 처음으로 현수막을 들고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걸었다. 또한 많은 중국인이 ‘파룬궁 지지’ 현수막을 들고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중에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성원하고 자유와 신앙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타주에서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네이멍구에서 미국으로 온 중국 교사 더밍저우(德明州)가 특별히 집회 현장에 와서 지지를 표했다. ‘4·25’ 사건을 언급하며 그는 “이는 역사적으로 중국인 각성의 출발점이며 미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건을 진지하게 기념할 것입니다. 중국에 있어 의미가 큼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4·25’ 사건이 “마치 어둠 속에서 찾기 힘든 한 줄기 빛과 같아서 많은 선량한 중국인의 마음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후 중공의 탄압은 중국 민중이 중공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 지역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4월 11일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해 중단을 촉구했다. 여러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을 통해 중공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고, 최근 격화되는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규탄했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수련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중공이 최근 30년 가까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는 21세기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2025년 ‘강제 장기적출 방지법’(HR 1503)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명예위원장인 마이

법공부 장소에 천목(天目)이 반쯤 열린 상태로 수련하는 한 수련생이 왔는데, 그의 교류는 저에게 매우 많은 계발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전체가 향상되도록 안배하신 기회로, 모두가 서로 촉진하며 함께 제고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류 과정에서 수련생이 안으로 찾을 때 사부님께서 산처럼 쌓인 검은 물질을 없애주시는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으로 찾으며 매우 조화롭고 장엄할 때, 그는 사부님의 법신이 주변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었고 사부님께서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힘이 났습니다. 그가 오면 저는 너무 기뻐고 그의 교류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환희심과 숭배심이 아닐까?’ 이전에 저는 천목이 열린 수련생을 접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사부님께서 법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누구도 대법제자의 수련 상황을 똑똑히 볼 수 없습니다. 천목이 열린 수련생이 본 것은 그가 있는 그 층차에서 본 것이지 최후의 진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사부님께서 청리해 주시는 장면을 보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흥분됐을까요? 이는 여전히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다’라는 과학적 관념과 신기한 것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사부님의 법을 배울 때는 왜 그렇게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수련생이 묘사한 장면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을까요? 이 점을 인식하고 나니 그 환희심과 숭배심, 천목에 대한 호기심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악을 소멸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사상업이 몰려올 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내가 아님을 구분하고 사부님께서 소멸해 주시길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은 모든 결심을 내어 전력으로 그것을 소멸한다. 그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그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성임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결심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해졌고, 한 생각의 힘으로 산을 가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단락의 말은 저로 하여금 이 졸린 상태에 대해 더욱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체 법공부만 하면 졸린다’,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책을 들고 읽다가 바로 잠이 드셨는데, 나도 이런 문제가 있고 유전인 것이다’ — 이런 것들은 모두 스스로 인정해 버린 것이며 이는 진실한 상황과 생각이 아니라 강제로 덧씌워진 것이니 반드시 철저히 해체해야 합니다!

지난번 단체 법공부에서 그 흐릿해지는 물질이 다시 천천히 제 머리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을 들고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그것에게 말했습니다. ‘대법제자의 단체 법공부는 이렇게 신성한 일인데 감히 교란하다니, 이는 대법제자의 정법 수련을 교란하는 것으로 큰 죄다. 당장 흠어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제거하겠다!’ 그러자 곧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렇게 총 3번을 했고 머리가 매우 맑고 또렷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다음번 법공부에서는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몰입하는 체득을 했으며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은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줄곧 가부좌를 하며 거의 3시간 동안 별로 아프지 않았고 매우 묘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다리를 내리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클 매콜은 중공이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들과 굳건히 함께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발표했다.

4월 23일, 미국 LA 파룬궁수련자들이 시청 앞 푸른 잔디밭에서 연공을 하며 집회를 열어 1999년 1만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의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했다. 그들은 각국의 정의로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27년간 지속해 온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남 캘리포니아의 중견 시사평론가 귀수련(郭樹人)은 당시 이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파룬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4·25’ 청원이 중국 역사상 모범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모두 자발적이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행연습도 없이 아주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으며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떠날 때 바닥에는 종잇조각 하나 없었는데, 중국의 그런 환경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파룬궁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한 이후, 귀수련은 수년간 시종일관 파룬궁수련자들을 지지하고 중공의 박해를 규탄해 왔다고 밝혔다. “저는 확고하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도덕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저는 시종일관 정의의 편에서 있습니다.”

4월 2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진상 사진전을 열고 ‘4·25’ 파룬궁수련자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리커(李科)는 줄곧 파룬궁수련자들의 행사에 참가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당일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성원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 그녀는 ‘4·25 기념’이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말했다. “‘4·25’의 정신은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제 인상은 그들이 아주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의 전시를 보며 여러분 파룬궁수련자들의 풍모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이 연공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실 중국인들은 모두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공산당의 오염으로 이기적으로 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미국은 종교 신앙이 있는 국가이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용감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4월 22일, 캐나다 오타와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4·25’ 평화청원 27주년 기념집회를 열어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고 박해 종식을 촉구했다. 캐나다 지구과학 전문가 레이스중(雷時忠) 박사는 ‘4·25’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항상 깊은 경의를 품고 있다. 그는 자신이 1999년 당시 이미 2년째 수련하고 있었으며, 중국 수련자들의 평화청원은 “완전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4·25’ 이 날은 기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평화청원이 국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계에 중국 민중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의 이어진 탄압이 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며 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룬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릴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의 이념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또 말했다. “저는 제가 아는 진상을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자는 ‘진선인’을 따르기에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4월 25일 캐나다 토론토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1999년 ‘4·25’를 직접 겪은 파룬궁수련자 두 명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법공부 팀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혼자 법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지자 ‘혼자 법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수련생과 교류하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체 법공부는 사부님께서 남겨주신 수련 형식이고, 단체 법공부는 법공부 상태에 대한 요구가 더 높습니다.”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단체 법공부에서 수련생들이 하나하나 오랜 시간 가부좌를 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고통을 참고 견지하기 시작해 3시간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수련생들 사이에서 법에 관한 교류와 일깨움은 저의 수련 향상에 매우 큰 촉진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단체 법공부를 잘 견지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단체 법공부를 할 때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어오도록 자신에게 요구하고 사부님께서 주신 수련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수련의 과정입니다.

법공부할 때 졸리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저는 때로 일어서거나 세수를 하거나 자신을 꼬집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한 수련생이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사악이 교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 법공부처럼 이렇게 신성한 일을 감히 교란한다면, 단호하고 조금도 사정없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여겨 발정념으로 제거했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사부님의 평어가 실린 글 ‘마성을 제거하자’를 보았는데, 한 수련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각이 이제는 분명해졌다. 우리가 바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를 사악과 구분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사악이 마땅히 존재해서는 안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표현이며 인위적으로 수련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한 후 나는 동태망을 열어보려는 생각을 최대한 밀쳐냈다. 그 이후 며칠간 연공과 발정념에서 정말로 고요히 가라앉는 그 아름다운 상태가 나타났다.

### 맺음말

오늘까지 수련해오면서 나는 정법 수련의 엄숙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세 가지 일을 잘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하며, 생활 속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올바른 수련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정법 수련의 길은 이미 길지 않다. 마지막 시간 속에서 나는 반드시 사부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걸어가며 법을 잘 공부하고 더 많은 중생을 구해, 사부님과 중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

## 단체 법공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글/ 지린성 대법제자 전전(眞珍)

[명혜망] 단체 법공부는 사부님께서 남겨주신 수련 형식입니다. 구세력이 저에게 일종의 교란을 배치했는데, 바로 단체 법공부를 할 때면 늘 일정 시간 정신이 흐릿해지며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법을 필사하고 법을 외웠습니다. 이렇게 법공부하면 법이 연속되도록 보장할 수 있었고 법공부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러자 ‘역시 혼자 법공부하는 것이 낫다’는 관념이 생겨 일주일에 한 번만 단체 법공부에 참가

이 집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1시 수련자들은 블루어 거리를 걸으며 여러 현수막을 세워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에 진상을 전했다. 27년 동안 파룬궁수련자들은 자유로운 수련 환경을 쟁취하고 박해 중단을 호소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토론토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토비야스는 현수막의 내용을 보았고 수련자가 건넨 진상 자료를 자세히 읽었다. 그는 파룬따파를 처음 들어본다고 밝히며 말했다. “듣자 하니 이것은 매우 평화로운 공법이며 타인을 대할 때 진실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법이 중국에서는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밝혔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박해는 옳지 않으며 그들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월 22일, ‘언브로큰’ 주최 측은 하얏트 호텔 그룹 산하의 토론토 X 호텔(Hotel X)에서 성대한 레드카펫 행사를 열었다. 다큐멘터리 총괄 프로듀서 스티브 랜스(Steve Lance)는 제작진 및 일부 선원예술단 예술가들과 함께 레드카펫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캐나다 정계 인사들도 ‘언브로큰’ 시사회에 지지 서한을 보내, 선원예술단이 캐나다인들에게 중국 고전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에 감사드리며 선원과 예술가들이 중공의 초국가적 박해에 직면해 보여준 두려움 없는 정신에 찬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멜리사 랜츠먼 보수당 부대표는 지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영상은 선원의 심오한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선원은 중국 고전무용과 이야기의 매력을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선사했습니다. 정교한 안무와 생동감 넘치는 고대 신화 전설을 통해 관객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전된 중국 고대의 무용, 음악, 이야기를 선보임으로써 선

원은 정치적 압력 아래에서도 문화 부흥의 강력한 상징이 됐습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해와 위협, 도전에 직면해서도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옳다고 믿는 일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상영은 여러분 공동체의 탁월함, 용기, 불굴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4월 20일 오후 캐나다 국회 국제인권소위원회(SDIR)가 개최한 ‘초국가적 탄압의 세계적 영향’ 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번 청문회는 국제 연구기관, 인권단체 및 피해 단체의 여러 대표를 초청해 증언을 들었고 중공이 해외에서 자행하는 협박, 감시, 괴롭힘 및 정보전 등 행위를 폭로했으며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캐나다 파룬따파학회 대표 다이공위(戴工羽)는 캐나다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1. 공개적으로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행동을 규탄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캐나다 주민과 기관을 겨냥한 중공의 간섭이 반드시 중단돼야 함을 명확히 전달할 것. 2. 정보기관에 이러한 위협을 조직적인 외국의 간섭으로 간주해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책임자를 추적하며 일선 경찰관들이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3. 조속히 ‘외국 간섭 방지법(C-70 법안)’ 중 외국 영향력 차단과 관련된 조항을 시행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독립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전문 법률을 제정할 것. 4. 공연 예술장 등에 외국과 관련된 허위 위협에 대응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

4월 25일, 1만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베이징에서 평화청원을 한 지 2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런던

### 3. 보통 사람의 사회 형세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 것

나는 매일 명혜망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고 명단을 올리는 등의 일을 한다. 이런 정당한 일 외에도 어느새 동태망(動態網)의 사회 형세와 생활 상식에 강한 관심을 갖게 됐고, 심지어 명혜망에 접속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게 됐다. 오래되다 보니 보통 사람의 것들이 많이 채워졌고 연공이나 발정념에서 고요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며칠 자제하다가 다시 또 같은 반복이었다.

이렇게 반복되니 나 자신도 매우 괴로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휴대폰 중독이랑 뭐가 다른가?’ 안으로 찾아보니 강한 집착심이 하나 있었다.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항상 보고 싶고, 정법이 언제 끝날지 알고 싶어하며 그로 인해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끌려다니면서도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부님께서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셨다. “대법제자는 수련하는 사람이지만, 수련하는 신이 아니다. 수련 중의 사람이라, 많은 적든 교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면 속인과 같은 것으로, 교란 중의 표현은 속인과 무슨 구별이 없다. 일부 수련생은 결코 무슨 마난(魔難)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정진하지 않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속인 사회의 각종 유혹에 집착이 생겨, 사회 중의 유인(吸引)에 끌려 내려간 것이다.” (각지 설법 9-2009년 대뉴욕 국제법회 설법)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보통 사람의 사회 형세의 변화는 모두 정법이라는 이 커다란 천상(天象)의 변화가 가져온 하나의 상태이며 모두 정해진 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로는 바쁘게 보였지만 정말로 진수(眞修)를 한 것인가? 특히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과 관념이 수시로 튀어나왔다.

예를 들어 어떤 수련생의 삼퇴 명단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솔직히 말해 그 수련생이 많이 탈퇴시킨다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었다.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지 계산하다 보니 삼퇴를 권유하는 과정이 단순해지고 빠른 것만 추구해, 진심으로 중생을 위한다는 마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대충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결과는 뻔한 일이다.

또 스스로 진수가 부족하고 명리심이 제거되지 않았으니 자연히 자비심도 생기지 않았다. 욕설을 하거나 신고하겠다는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감정이 동요됐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미 ‘이 사람은 구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원망심도 올라왔다.

20여 년간 진상을 알려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몇 년 전 진상을 알리러 나갔던 것은 정법 노정에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은 다른 층차에서 다른 요구를 한다. 지금까지도 그토록 많은 집착심을 제거하지 못했으니 대법제자로서 진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생각하니 정말 사부님께 부끄럽고, 나에게 무한한 희망을 걸고 있는 중생들에게도 미안하다.

이것이 바로 매일 법을 공부하고 받아쓰고 암송해도 법을 배우지 못한 이유다. 만약 차츰 자신을 이완시켜 처음 수련하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구세력에게 박해의 빌미를 잡히게 된다. 설사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련의 길에서 계속 걸림돌에 부딪힐 것이다. 나는 진수(眞修)와 실수(實修)에 힘써 그 나쁜 사람의 마음들을 빨리 제거하고 합격한 대법제자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시내 중심에서 퍼레이드와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저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퍼레이드 대열은 중국대사관에서 출발해 런던 시내에서 가장 변화한 상업 도로와 차이나타운을 거쳐 최종적으로 트라팔가 광장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련자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궁 박해를 저지하자’ 등의 현수막을 들었으며, 평화로운 대열과 은은한 연공 음악은 길을 가던 수많은 시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행사는 영국 국회의원과 상원의원 여러 명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은 중공의 인권 유린 행태를 규탄하고 최근 심화된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버터셋의 루스 리스터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태극권을 연마하며 수련의 이로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평화로운 환경을 쟁취하고 자유롭게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위해 전개하는 활동을 매우 지지합니다.” 인도·태평양 담당 장관 겸 평등 담당 장관인 시마 말호트라 의원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어떠한 외국 정부가 해외, 특히 영국 영토 내에서 자국에 대한 비판자를 협박, 위협, 괴롭히거나 해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을 영국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나 신앙의 자유라는 이 기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확고히 헌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이 권리를 수호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4월 21일 오후, 스위스 파룬궁수련생들이 4·25기념 행사를 열었다.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옷을 입고

제네바 구시가지의 상징적인 아케이드 아래에서 평온하게 연공하며 진상을 알렸다. 스위스 연방의회 마우로 포자(Mauro Poggia) 상원의원은 현장을 찾아 파룬궁수련자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불행히도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극으로 인해 시선이 분산돼 중국과 점차 늘어나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견지하고 있는 모든 수련자, 그리고 박해로 인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수련자들을 기억하고 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의원이 회의를 드나들며 먼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으며, 파룬궁 박해를 반대하는 서명지에 서명해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4월 20일 오후 프랑스 파리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파리 7구의 앙드레 타르디외 광장(Place André Tardieu)에 모여 파리 시민과 관광객에게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자들의 평화롭고 이성적인 박해 반대 과정을 소개하고, 27년간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가한 박해와 장기적출을 폭로했다. 당일 행사 장소 맞은편은 바로 지하철역 입구였고 중공 대사관과 멀지 않았다. 평화로운 연공 음악에 맞춰 파룬궁수련자들이 가부좌하고 연공하자 오가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사람이 ‘4·25’라는 평화롭고 이성적인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를 이해하게 했다. 사람들은 이를 듣고 박해 반대 청원서에 서명하며 파룬궁의 행동을 지지하고 조속히 이 박해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 1. ‘늙었다’는 관념 제거하기

최근 들어 나는 몸이 자주 피곤하고 눈이 침침함을 느꼈다. 수련생들은 정념을 발할 때 손바닥이 기울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머리도 들지 못한다고 내게 지적해줬다. 나 스스로도 고치려 애썼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왜일까? 바로 내가 나이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릴 때 나도 모르게 다리가 가끔 아프다고, 젊었을 때 눈에 들어가 발이 시려서 그렇다는 말을 하곤 했다.

‘늙었다’는 개념이 형성되면 많은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는가? 대법수련을 30년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나를 보는 사람마다 실제 나이보다 10여 살은 어려 보인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수련인은 반본귀진(返本歸真,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해야 한다. 다만 나는 아직 사람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법이 머릿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늙었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사부님과 법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서 신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의 생각이 항상 우세하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람이다.

이 두 차례의 다리 통증은 내가 빨리 사람의 관념을 바꾸고 법안에서 자신을 바로잡아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 2.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드러난 질투심과 원망심

여러 해 수련하면서 나는 줄곧 사부님의 정법 노정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련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삼퇴 명단을 올리고, 교류 글을 녹음하고, 직접 만나 진상을 알리는 등…… 걸으

## 올바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체험

글/ 라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어느 날 오후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진상을 알리러 외출하려고 준비하다가 먼저 식료품 가게를 한 바퀴 돌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날이 개어 있었다. 그래서 맞은편 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막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발을 내딛기가 두려웠다. 억지로 참으며 버스 정류장 옆 벤치까지 걸어가 앉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렇게 갑자기 통증이 오지? 틀림없이 구세력이 내가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것을 교란하는 거야.’ 나는 정념을 발하기 시작했다. 구세력 및 대법제자가 중생을 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흑수(黑手), 난귀(爛鬼)의 모든 사악한 요소를 제거했다. 좀 나아진 후 정류장 주변에서 몇 사람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왜 교란을 당한 걸까? 어떤 마음을 구세력에게 빈틈으로 잡힌 걸까?’ 한 시간 더 정념을 발하고 사부님께서 ‘선해(善解)’에 대해 말씀하신 법을 몇 번 암송했다. 다음 날 아침 다리가 아픈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다시 진상을 알리러 나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무릎에 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분명 나의 수련에 큰 허점이 생긴 것이었다. 다리가 아픈 것이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이 기간의 수련 과정을 돌이켜보며 자신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찾아냈다. 수련생들과 교류하기 위해 이를 적어 본다.

4월 25일 독일 베를린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유명한 랜드마크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성원을 받았다. 이날 베를린은 화창한 날씨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는 시민들은 편안한 음악과 평화로운 공법 시연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고 수련자들의 연공 장면을 지켜봤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연공 동작을 따라 하기도 했다.

4월 25일,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온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주도 뮌헨의 마리엔 광장에서 ‘4·25’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현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과 중국인들이 현장에서 중공의 각종 조직을 탈퇴하기도 했다. 독일 예술가 요한나(Johanna)는 파룬궁수련자들의 행사 현장을 보고 “저는 이 주제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몇 년 전에도 이런 주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라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매우 평화로워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의 ‘진선인’ 원칙도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저는 이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이를 더 많이 체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저의 기독교 신앙과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정말 힘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4월 22일, 벨기에 파룬궁수련자들은 벨기에 주재 중공 대사관 앞에서 ‘4·25’ 평화청원 2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교육계에서 일하는 파룬궁수련자 야니크 더클레르크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견지하는 이러한 행동은 파룬궁수

련자들이 장기간 ‘진선인’ 원칙을 따른 내적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4·25’를 기념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가 신앙 자유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요구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는 그들이 선의 힘을 진정으로 믿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러한 견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파룬궁수련자들이 다년간 ‘진선인’ 요구에 따라 스스로 형성한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사로서 야니크는 이러한 평화롭고 이성적인 표현 방식과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4월 23일, 네덜란드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헤이그 주재 중국 대사관 및 네덜란드 하원 인근에서 ‘4·25’ 파룬궁수련자 평화청원 27주년을 기념하며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4월 25일 일부 스웨덴 파룬궁수련자들은 스톡홀름 중국대사관 앞과 도심 국회의사당 옆에서 ‘4·25’ 평화청원 27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며 중공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또한 중공의 박해와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초국가적 탄압 등 범죄를 규탄하는 동시에 스웨덴 각계각층에 박해를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호소했다. 당일 오후 1시 파룬궁수련자들은 또 스톡홀름 도심 국회의사당 옆의 동전 광장에 와서 단체 연공, 서명 수집 등의 형식으로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27년 전 ‘4·25’ 진상을 이야기했다.

사부님께서 ‘정진요지2’의 ‘강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개변할 수 없다’에서 말씀하셨다. “가짜 경문을 만들어 내고, 수련생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등 강패적인 수단의 협박·기만·강압 하에서 일부 수련생들이 정신이 똑똑하지 않을 때 핍박으로 그 무슨 이른바 ‘연공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회개서’와 같은 것들을 썼다. 이는 모두 수련생 내심의 진실한 표현이 아니며 진심으로 원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그들이 집착이 있고 일시적으로 사악이 틈을 타게 하여 한 수련자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지만, 한 수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나는 이 일체를 승인하지 않는다. 그들이 명백해졌을 때 즉시 새롭게 한 대법(大法) 수련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며, 동시에 강압적인 박해 중에서 수련생의 정신을 흐리멍덩하게 했을 때 한 말과 써놓은 일체를 폐지함을 성명하면서 확고하게 수련할 것이다.”

따라서 박해 속에서 이른바 ‘수련하지 않겠다’거나 ‘회개서’ 같은 것을 말하거나 쓴 것이 아니라면 ‘엄정 성명’을 낼 필요가 없다. 더구나 어떤 수련생은 ‘엄정 성명’을 매우 가볍게 여겨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상은 필자가 현재 깨달은 바에 불과하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련생들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지 수십 년이 됐으며, 대부분은 법률의 형식을 빌려 박해를 자행해 민중에게 대법제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거짓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정법 수련 속에서 대법제자들이 점차 성숙해지면서 대다수의 제자들은 법률로 박해에 대항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할 수 있는 만큼 법률 지식을 익혀왔다. 그러나 주변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수련생이 박해받는 것을 겪고, 심지어 자신도 잡히거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법률 지식 습득을 거부하는 수련생이 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배울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아예 “법률을 배우는 것은 박해를 인정하는 것이고, 미리 배워두는 것은 박해를 각오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생각건대 이런 수련생들은 무엇보다 인과관계를 혼동하고 있다. 우리가 법률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박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박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항하기 위해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박해를 직시하는 것이 박해를 인정하는 것과 같지 않다. 오히려 박해의 존재를 알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밝히고 부정하며 제거해야만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4. ‘엄정 성명’을 남용하는 것

최근 몇 년간 수련 중에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엄정 성명’을 발표하는 수련생이 계속 있어 왔다. 사실 대법제자도 수련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했으면 고치면 그만이지 크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대법 수련에서 ‘엄정 성명’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 || 중국소식 ||

### 출소 전날 밤, 의문의 죽음

닝샤(寧夏) 중닝(中寧)현 55세 남성 유하이진(尤海軍), 5년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생후 4개월 된 외손녀와의 상봉을 앞두고 2026년 4월 13일 닝샤 스즈이산(石嘴山)교도소에서 의문사

교도소 측은 정확한 의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가족들을 압박하여 6일 후 서둘러 유해를 화장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식사 이상 정황’과 집행 요원이 과거에 발한 ‘사망 협박’은 이 사건을 짙은 의혹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 1. 치명적인 점심: 사라진 7분

가족이 확인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유하이진이 세상을 떠난 당일(4월 13일)의 정황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핵심 행동: 정오 12시 식사 중, 한 수감자가 갑자기 유하이진의 밥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공백 시간: 해당 그릇이 감시 카메라 범위를 벗어난 시간은 7~8분에 달했습니다.

치명적인 우연: 유하이진이 밥그릇을 돌려받아 식사를 계속한 후, 오후 3시에 사망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사인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왜 전체 수감자 중 유독 유하이진의 식사만 중간에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생전에 건강 상태가 줄곧 안정적이었던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 2. 사라진 유해: 봉쇄된 진실

유하이훤 사망 후, 교도소 측은 이상할 정도로 ‘급박함’을 드러냈습니다.

**화장 압박:** 교도소 측은 가족들을 협박하며 사인 규명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4월 19일 이른 아침, 교도소 측은 강제로 화장을 진행했고, 가족들에게는 유골만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가족의 처지:** 유 씨 가족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유하이훤의 80세 노모는 아직까지 비보를 전달받지 못했고, 딸은 아직 수유 중입니다. 교도소 측은 가족들이 고립무원인 상황과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강제로 화장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3. 삶과 죽음의 서명: 예고됐던 ‘사고’

이것이 유하이훤이 처음으로 직면한 죽음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건 심리 과정에서 중닝현 국보(國保) 지도원 저우췌(周旭)는 유하이훤이 위조된 증거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당면하여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살아서 나갈 생각 마라. 중국의 억울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은데, 너 하나 죽는다고 무슨 상관이나.”

이 잔인한 예언은, 5년 형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 4. 신분의 이면: 한 자애로운 아버지의 자기 구원

유하이훤은 생전에 전문 타워크레인 기사였습니다. 그가 파룬궁(法輪功) 수련을 지속했던 것은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에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단지 생각만 했지 결코 실천하여 닦지 않았다.”(2005년 샌프란시스코 법회 설법)

개인적인 이해로는, 수련 중에 집착심을 발견했을 때 생각 속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행동으로도 억제해야 비로소 사부님의 가지(加持)하에 집착심을 점차 약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수련생은 집착심을 향해 정념을 발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정념을 발할 때 생각 속에 집착을 부정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고 행동 면에서도 일정한 억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리가 분명하지 않아 다소 효과는 있더라도 제고에 한계가 생기는데, 실제로 닦는[實修]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2. 진상 알리기로 수련을 대체하는 것

진상 알리기로 수련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일하는 것으로 수련을 대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수련보다 일을 강조하는 것이다. 수련생들 사이에서 어떤 수련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일 나가서 세 가지 일을 한다”거나 “세 가지 일을 꽤 잘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이것은 ‘진상 알리기’라는 한 가지 일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 가지 일이란 법공부와 수련, 발정념, 진상 알리기를 가리킨다는 것은 모든 수련생이 알고 있다. 이 중에서 자신의 법공부와 수련이야말로 기초이자 첫 번째다.

## 3. 법률 지식을 익혀 박해에 대항하는 것이 박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구세력이 사악한 중국공산당(중공)을 이용해 대법제자를 박해한

## | 수련교류 |

## 수련 중의 몇 가지 오류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주변 수련생들 사이에서 수련 중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오류를 발견했다. 이를 글로 써서 관련 수련생들에게 일깨워 주고, 아울러 개인적인 인식도 함께 나눠 참고가 됐으면 한다.

## 1. 발정념으로 수련을 대체하는 것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하며, 명혜망의 교류 글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어 수련생이 수련 체험을 이야기할 때 “이 집착심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념을 발해 부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수련생도 있다.

대법에 들어선 날부터 우리는 ‘사람의 전반 수련과정은 바로 끊임없이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다’(전법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집착심은 어떻게 없애는가? 당연히 수련을 통해 없애야 한다. 어떻게 수련하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그토록 중하게 본다면 곧 그것을 억누를 수 있으며, 그럼 당신은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고 점차 철저히 제거해 버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알고 있다고 느끼고, 또 아주 조금해하지만, 그러나 실천 중에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사실 당신은 단지 이런 사상 활동을 오로지 보고 느끼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뿐, 당신은 그것의 행위를 억제

서 비롯됐습니다.

딸을 위한 구의(求醫): 2004년, 세 살배기 딸의 심한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곳곳에서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이후 수련을 시도한 후 기적적으로 완치됐습니다.

도덕 실천: 그는 이를 계기로 진(眞)·선(善)·인(忍)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다스렸고,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서 효자이자 자애로운 아버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신앙이 그를 당(黨)이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두 차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 5. ‘고도 경계’ 아래의 어두운 숲

스쭈이산 교도소 16감구(監區)는 일명 ‘고도 경계 감구’로 불립니다. 최근 몇 년간, 이곳에서는 수련생들이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송라이핑(宋來平): 출소 당시 얼굴이 검고 여윈 데다 사고력이 저하되었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1년 후 사망했습니다.

마슝더(馬雄德): 출소 당시 걸음걸이가 힘겹고 정신이 혼미했으며, 이후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유하이전의 죽음은 ‘조직적 탄압’으로 악명 높은 닝샤 스쭈이산 교도소 16감구를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 맺음말

유하이전의 유골은 인촨(銀川)에 안장됐지만, 그가 사망하기 전 ‘그 밥그릇’과 교도소 측의 ‘강제 화장’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미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안정 유지’로 대체되고, 생명이 “하나쯤 더 죽어도 상관없는” 숫자로 여겨질 때, 모든 평범한 사람의 안전 경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수련인의 비극이 아니라, 중국의 법치가 황폐화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 위챗 발언으로 위치 추적돼 납치된 지린성 령전후이, 부당하게 중형

[명혜망](지린성 통신원) 지린성 쑹위안시 첸귀현 파룬궁수련자 령전후이(冷振輝)는 2025년 10월 10일경 첸귀현 공안국 형사경찰대에 납치됐으며, 이후 현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결탁으로 모함을 당했다. 2026년 2월 5일, 첸귀현 법원은 그를 상대로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령전후이는 7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

남성인 령전후이는 쑹위안시 첸귀현 타오하오타이향 창튀쯔춘동창튀쯔툰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그는 신앙을 견지해 4차례 납치되고 2차례 부당하게 강제 노동을 당했으며, 2차례 세뇌반으로 끌려갔다.

령전후이는 1998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후 그의 신체는 최상의 상태로 회복됐고 도덕 기

에서 부당하게 온라인 재판을 받고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8월 24일 그녀는 톈진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받았고, 2026년 4월 7일 가족이 데리고 나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질 듯한 상태였으며, 11일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2026년 4월까지 그녀는 중공 악당에게 세 차례 부당한 판결을 받았으며, 누적 15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감금돼 박해를 받았다.

후난성 상탄시 77세 파룬궁수련자 후동샤(胡東霞)는 여러 차례 중공 직원에게 박해당해 부당한 가택수색, 구류를 당하고 마약중독치료소, 구치소, 세뇌반, 감옥, 노동수용소에 감금됐다. 그녀는 세 번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고, 노동수용소와 감옥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해 불구가 됐으며 2026년 2월 21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대한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지린성 여자감옥 제10감구에 감금돼 박해를 받고 있다. 그녀가 몇 년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2025년 4월 14일 지린시 공안국 창이(昌邑) 분국과 민주(民主) 파출소 경찰은 전동 드릴로 지린시 창이구 썬 자오셴 근처에 있는 그녀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그녀를 납치했다.

**산둥성** 칭다오시 파룬궁수련자 귀즈민(郭志敏)은 젊은이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2025년 10월 24일, 버스정류장에서 청양구 청양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청양 파출소로 끌려가 칭다오시 청양구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의 사법 모함을 받아 2026년 3월 19일 청양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최근 귀즈민이 1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65세인 귀즈민은 칭다오시 청양구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유전병을 앓아 선천적으로 많이 걷지 못했고, 조금만 많이 걸어도 너무 지쳐 온몸이 아팠다. 그녀의 두 팔도 업무로 인한 손상이 심각했다. 2010년, 귀즈민은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사지의 건강을 회복해 두 다리로 바람을 일으키며 걸을 수 있게 됐다. 귀즈민은 대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했다. 귀즈민은 파룬따파의 ‘진선인’ 기준에 따라 일하고 사람을 대했으며, 이웃과 사이가 매우 좋아 모두가 그녀를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톈진시** 베이천구 파룬궁수련자 장릉슈(張榮秀)는 2021년 8월 10일 밤 납치돼 모함을 받았다. 12월 9일 톈진시 난카이구 법원

준이 끊임없이 향상됐으며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행동했다.

휴대폰 위챗 채팅 중 파룬따파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이 중공에 의해 ‘민감한 주제’로 간주됐다. 그의 위챗 계정은 차단됐고 휴대폰도 위치 추적과 감시를 당했다. 2025년 10월 10일경, 첸귀현 공안국 형사경찰대의 경찰차 두 대가 등창튀쓰툰으로 곧장 들어왔다. 당시 령전후이는 마을에서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경찰차 두 대가 갑자기 그의 앞에 멈췄다. 앞차에서 사복 경찰 두 명이 내려 다짜고짜 그를 제압했다.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제지하자 두 사복 경찰은 즉시 ‘경찰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이후 뒤차에서 타오하오타이향 파출소 소장을 포함한 네 명의 경찰이 추가로 내렸다. 령전후이는 강제로 경찰차에 압송됐다. 이후 경찰은 그의 집으로 가서 부당하게 가택수색을 해 일부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령전후이는 첸귀현 과이보텐 구치소에 끌려가 감금됐다. 이후 첸귀현 공검법이 서로 결탁해 그에게 죄를 날조했다. 2026년 1월 사건이 첸귀현 법원으로 송치됐고, 2월 5일 법원은 부당하게 재판을 열었으나 당일 선고하지는 않았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첸귀현 법원은 령전후이에게 부당하게 7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는 부당한 판결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항소 중이다.

## 안전 참고

위챗(WeChat)은 중국에서 전방위적인 자동화 검열 및 콘텐츠 분석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발송하는 메시지에 중국공산

당이 규정한 금지 어휘가 포함될 경우, 시스템이 즉시 차단합니다. 위챗은 또한 이미지와 동영상에 대해 해시값(Hash) 비교를 수행합니다. 특정 이미지가 민감 콘텐츠로 표시된 경우, 조금 잘라내거나 수정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이미지 인식을 통해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팅으로 전송된 파일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은 위반 콘텐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캔을 실시합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위챗 계정이 반드시 휴대폰 번호 또는 신분증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모든 발언이 현실 속 개인으로 추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동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공안 당국은 기지국 위치 추적 또는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 위치 특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 최소 6개월간의 네트워크 로그를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누군가 감시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기록은 보관되고 있으며, 관련 당국이 열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 환경에서 위챗을 사용할 때 가장 합리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챗은 사적인 암호화 공간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규정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챗 서버의 알고리즘이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후난성** 형양시 11명의 파룬궁수련자 저우쯔셴(周子閑), 후샤오원(胡曉雲), 리위원(李玉文), 푸쭈이란(符穗蘭), 왕위안슈(王元秀), 덩쿤허(鄧坤河), 인차오쥘(尹超群), 탕형옌(唐衡艷), 저우쥘후이(周俊慧), 차오천후이(曹晨輝), 장전(蔣珍)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지대와 파출소에 납치 및 모함받았고 2025년 4월 15일 정양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은 후 12월 31일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저우쯔셴은 8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3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후샤오원은 7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3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리위원은 4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푸쭈이란은 3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왕위안슈는 2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인차오쥘은 3년형(집행유예 5년)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탕형옌은 3년형(집행유예 5년)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덩쿤허는 3년형(집행유예 4년)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저우쥘후이는 3년형(집행유예 4년)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차오천후이는 2.5년형(집행유예 3년)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장전은 2년형(집행유예 2년)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지린성** 여자감옥에서 돌아온 파룬궁수련자에 따르면 지린시 1급 장애인으로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아이민(張愛民) 노인이 ‘진선